

임박한 전쟁 종료와 그 이후의 이라크

□ 전쟁의 막바지?

- 이번 전쟁은 발발 직후 미국의 압도적이고 조속한 승리 기대가 비정규전에 의존한 이라크의 역공으로 다시 장기전 우려로 바뀌는 등 지난 19일간 몇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음.
- 그러나 이번 전쟁은 약 4~5주의 단기전이 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길어도 3개월을 넘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이제 이번 전쟁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바그다드 시가전만을 남기게 되었음.
-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후세인과 그 측근들의 퇴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남은 문제는 바그다드 전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인명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임.

○ 전쟁의 마지막 고비는?

- 군사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공화국수비대의 전력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공화국수비대와 처음부터 시가전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특수공화국수비대, 페다인 사담 게릴라부대 등의 저항 능력임.
- 후세인의 통제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이 인간방패, 자살테러 등 극한적인 방법으로 저항한다면, 시가전의 특성상 미·영 연합군과 민간인들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終戰까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엄청난 전력의 열세에 있는 이라크군이 변변한 저항도 못하거나, 미군 특수부대의 후세인 제거 등으로 바그다드가 손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함.
- 지난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탈레반 지도자인 오마르와 알카에다의 빈라덴을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한 경우처럼 바그다드를 점령하고도 후세인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쟁 종료가 늦추어질 수도 있을 것임.

○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쓸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 왔음.
-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여론을 악화시키고 미국에게는 전쟁명분을 안겨줄 것을 의식해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전쟁 이후가 없는 후세인이 생화학무기 사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어 왔음.
- 한편, 군사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음. 이라크가 보유한 생화학물질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지 못하거나, 이를 공격에 사용할 무기수단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영 연합군의 우수한 대응장비로 생화학공격 자체가 큰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음.

□ 미국은 벌써부터 전후 질서구축에 나서

- 미국은 벌써부터 전후 질서구축에 나섰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수일 내로 움카스르(Um Qasr)에 과도정부를 설치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음.

- 복구사업, 석유개발사업 등 막대한 경제적 이권이 걸린 전후문제를 놓고 프랑스, 러시아 등 반전국가들은 UN이 전후질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영국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UN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국무부는 UN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방부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주도에 따라 전후질서가 구축될 것이며 UN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3단계 과정을 거쳐 새 정권 출범 할 듯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후 치안유지와 질서회복을 위해 6개월 내지 1년간 미국이 직접 군정(military rule)을 실시하고, 뒤이어 이라크인이 주도하는 과도정부(transitional administration)가 헌법제정 및 선거사무를 관장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임.

○ 1단계: 군정 참여인사 하마평 무성

- 전쟁 직후 출범하여 6개월 이상 이라크를 통제할 군정 최고지휘관은 현 중부군 사령관인 프랭크스(Tommy Franks)가 맡게될 것으로 보임. 또한, 치안 및 군사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장악할 행정수반에는 퇴역장군인 가너(Jay Garner)가 내정되었음. 걸프전 이후 이라크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왔던 가너는 럼스펠드 장관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음. 그밖에 울시(James Woolsey) 전 CIA국장이 공보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가너는 이미 쿠웨이트에 본부를 두고 전직 외교관, 군장성, 관료 등 과도기 행정업무를 맡을 인사들을 물색해 왔음. 그는 특히 북부, 중부, 남부 등 3부 행정관을 들 예정인데 중부담당 행정관에는 전직 예멘 대사를 역

임했던 보딘(Barbara Bodine)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행정관리 구성문제로 국무부와 국방부간에 알력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군정의 인물구성은 이라크의 새로운 체제구성에 관한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 이들은 차기 정부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향후 이라크 정부의 의사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임.
- * 전후 복구사업을 주도하게될 美원조국(USAID)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국무부는 나름대로 전후 임시정부에 참여할 인사를 광범위하게 물색해 왔으며, 임시정부에서 UN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역설해 왔음.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신임이 국방부에 쏠리면서, 국방부는 국무부가 추천한 인사들의 임용을 거부하고 UN의 역할공간도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최근 파월도 UN의 역할 제한을 언급하였음.

○ 2단계: 야당 인사들 정권인수 준비에 나서

- 후세인에게 탄압을 당했던 소위 야당세력이 이라크에 새로운 질서구축을 주도하게 될 것이나, 야당세력들은 시아파 회교도에서 쿠르드족, 개별 활동가 등 다양한 집단을 망라하고 있어 결집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음.
- 그러나 야당세력들은 65인 인수위원회(follow-up committee)와 6인 지도자회의(leadership council)를 구성하고, 야당세력간 협력방안, 신헌법 구상 등 벌써부터 의욕적인 신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이들은 인수위원회가 향후 의회체제로 발전되길 바라고 있으며, 대표성을 갖기 위해 보다 많은 세력을 포괄하려 애쓰고 있음.
- * 한 예로 이란에 근거를 둔 시아파 저항단체인 '이라크 이슬람혁명 최고평의회'(SCIRI)에 30%의 의석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3단계: 민주적인 정부 구성이 관건

- 중동지역은 왕정, 경직된 회교주의체제 아니며 강력한 1인 독재체제가 보편화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민주체제에 대한 경험이 적었음.
- 미국의 중요한 장기전략의 하나도 이라크에 민주체제를 자리잡게 함으로써 주변국가들로 민주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임. 그러나 미국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이라크의 민주정부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출범하는 것이며, 미국은 이라크의 체질변화보다는 무늬만 민주주의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이라크 내정에 관여하게 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이 친미정권을 강력히 지지할지도 미지수임. 악을 제거하고 민중을 해방시킨 해방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임.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